

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
제2외국어/한문영역 한문 I 정답 및 해설

01. ③ 02. ④ 03. ② 04. ① 05. ② 06. ④ 07. ② 08. ② 09. ① 10. ④
11. ④ 12. ⑤ 13. ③ 14. ④ 15. ⑤ 16. ③ 17. ⑤ 18. ① 19. ④ 20. ①
21. ② 22. ① 23. ② 24. ③ 25. ① 26. ③ 27. ⑤ 28. ⑤ 29. ③ 30. ④

1.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① 自然(자연):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

② 河川(하천): 강과 시내

③ 高遠(고원): 높고 멀다. 산 아래에서 산 위를 올려다보는 것

高遠畫法(고원화법): 동양화의 전통 구도법 가운데 하나로, 산 아래에서 높은 산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에서 높은 봉우리의 크기와 뚜렷함을 부각시켜 화폭에 ‘높이’를 강조하는 화법이다.

④ 天地(천지): 하늘과 땅

⑤ 草家(초가):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

정답 ③

2. 단어의 음, 의미, 유의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意見(의견):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

發見(발견):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, 사실 따위를 찾아냄.

정답 ④

3. 한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

————— <보 기> —————

ㄱ. 吉(길): 길하다 - 凶(흉): 흉하다

ㄴ. 道(도): 길 - 路(로): 길

ㄷ. 死(사): 죽다 - 活(활): 살다

ㄹ. 身(신): 몸 - 體(체): 몸

정답 ②

4. 한자의 음, 총획, 부수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己(기): 몸, 校(교)의 총획은 10획, 話(화)의 부수는 言(언), 日記(일기):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,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

① 記(기): 기록하다, 言(언)부, 총 10획

- ② 哲(철): 밝다, 口(구)부, 총 10획
- ③ 常(상): 항상, 巾(건)부, 총 11획
- ④ 詩(시): 시, 言(언)부, 총 13획
- ⑤ 期(기): 기약하다, 月(월)부, 총 12획

정답 ①

5. 뜻에 맞는 단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① 靑白(청백): 청색과 흰색

- ② 黑白(흑백): 검은색과 흰색. 옳고 그름.
- ③ 黑土(흑토): 빛깔이 검은 흙
- ④ 黑龍(흑룡): 검은 빛깔의 용
- ⑤ 明白(명백):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.

정답 ②

6.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利息(이식): 이자

利子(이자):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

- ① 他(타): 다르다
- ② 器(기): 그릇
- ③ 害(해): 해치다
- ④ 子(자): 아들, 접미사
- ⑤ 刀(도): 칼

정답 ④

7. 성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[가로 열쇠] 竹馬故友(죽마고우) [세로 열쇠] 馬耳東風(마이동풍)

- ① 竹(죽): 대나무
- ② 馬(마): 말
- ③ 故(고): 옛
- ④ 東(동): 동쪽
- ⑤ 風(풍): 바람

정답 ②

8. 단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① 成長(성장): 사람이나 동식물, 사물의 규모나 세력이 자라서 점점 커짐.

② 平和(평화): 전쟁,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.

③ 開放(개방):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. 금

하거나 경계하던 것을 풀고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교류하게 함.

- ④ 自立(자립): 남에게 예측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.
- ⑤ 品格(품격):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

정답 ②

9. 뜻에 맞는 교과 학습 용어를 알고 있는가?

- 정답 해설: ① 內心(내심):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실제의 마음. 다각형에서 내접원의 중심. 다각형의 모든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다.
- ② 內角(내각): 한 직선이 두 직선과 각각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의 안쪽에 생기는 각
- ③ 內實(내실): 내부의 실제 사정
- ④ 安心(안심): 모든 걱정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짐.
- ⑤ 外面(외면): 겉에 있거나 보이는 면. 말이나 하는 짓이 겉에 드러나는 모양.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림.

정답 ①

10. 뜻에 맞는 학습 용어를 알고 있는가?

- 정답 해설: ① 水中(植物)(수중(식물)): 물속에서 생육하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
- ② 陽地(植物)(양지(식물)): 햇빛이 쬐는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. 대부분의 일년초와 농작물 따위가 이에 속한다.
- ③ 綠色(植物)(녹색(식물)): 엽록소를 가지고 있으며 광합성에 의하여 녹말을 만들 수 있는 식물. 대부분의 식물이 이에 속한다.
- ④ 羊齒(植物)(양치(식물)): 관다발 식물 중에서 꽃이 피지 않고 홀씨로 번식하는 식물계의 한 문. 진화상 이끼 식물과 종자식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.
- ⑤ 藥用(植物)(약용(식물)): 약으로 쓰거나 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. 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, 한방에서 쓰는 것, 민간에서 쓰는 것 등 분류에서 고등 식물에까지 종류가 많다.

정답 ④

11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?

- 정답 해설: ① 大同小異(대동소이):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.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.
- ② 莫上莫下(막상막하):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.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.
- ③ 不恥下問(불치하문):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.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손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일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음.

④ 小貪大失(소탐대실):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다. 작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큰 손실을 입게 됨.

⑤ 朝三暮四(조삼모사): 아침에 세 개, 저녁에 네 개.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.

정답 ④

12. 그림과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① 非一非再(비일비재):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.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.

② 九牛一毛(구우일모):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.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

③ 三人成虎(삼인성호):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 내다.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.

④ 聞一知十(문일지십):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미루어 알다. 지극히 총명함.

⑤ 孟母三遷(맹모삼천):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 이사하다.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함.

정답 ⑤

13.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言以不足爲貴, 行以有餘爲善.(언이부족위귀, 행이유여위선.): 말은 (㉠아낌)을 귀하게 여기고, 행동은 (㉡넉넉함)을 선하게 여긴다.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③

14.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○ 군자는 (㉠먼저) 그 말을 실행하고, 나중에 그것을(말이 행동을) 따르게 한다.
○ 공적인 일은 남보다 (㉡먼저) 하고, 사적인 일은 남보다 나중에 한다.

정답 해설: ① 來(래): 오다

② 作(작): 짓다

③ 代(대): 대신하다

④ 先(선): 먼저

⑤ 助(조): 돕다

정답 ④

15. 뜻에 맞는 단문의 한자를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日新者, 日進也, 不日新者, 必日退.(일신자, 일(㉠진)야, 불일신자, 필일

퇴.): 날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날로 (㉠진보하고), 날로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날로 퇴보한다.

- ① 忘(망): 잊다
- ② 飲(음): 마시다
- ③ 敗(패): 패하다
- ④ 悲(비): 슬프다
- ⑤ 進(진): 나아가다

정답 ⑤

16.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글씨를 잘쓰는 (사람은) 종이와 붓을 가리지 않는다.

정답 해설: ① 친구 따라 강남 간다.: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
② 범도 제 말 하면 온다.: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,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홍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.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
③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.: 자기의 재간이 모자라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조건만 탓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.: 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.: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,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정답 ③

[17~18] 지문 풀이

소리와 색깔은 외물이다. 외물은 항상 (㉠귀와 눈)에게 누가 되어 ㉡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듣는 올바름을 잃게 한다.

17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㉠에 들어갈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① 手足(수족): 손과 발
② 老少(노소): 늙은이와 젊은이
③ 兄弟(형제): 형과 아우
④ 衣食(의식): 의복과 음식
⑤ 耳目(이목): 귀와 눈

정답 ⑤

18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①

19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있는 단문을 찾을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① 當正身心, 表裏如一.(당정신심, 표리어일.):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이 하나같아야 한다.

② 幼而不學, 老無所知.(유이불학, 노무소지.):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.

③ 當斷不斷, 反受其亂.(당단부단, 반수기란.):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그 어지러움을 받는다.

④ 至於待人, 則各取其長.(지어대인, 즉각취기장.): 남을 대함에 이르러서는 곧 각각 그 장점을 취한다.

⑤ 禍生於欲得, 福生於自禁.(화생어욕득, 복생어자금.): 재앙은 (많이) 얻고자 하는 데에서 생기고, 복은 (욕심을) 스스로 금하는 데에서 생긴다.

정답 ④

[20~21] 지문 풀이

잡스러운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고, ㉠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. 사람과 만날 때에는 행동거지를 반드시 공손하게 해야 하며, 말은 반드시 ㉡삼가고 조심해야 한다.

20. 단어의 독음을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㉠ 謹慎(근신):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.

정답 ①

21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②

[22~23] 지문 풀이

사람이 성인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면 ㉠누구인들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. 허물이 있으면 뉘우칠 수 있어서 곧 마땅히 그것을 (㉡고칠 것을) 도모하는 것이 곧 끝내 허물이 없는 데에 이르는 방법이다.

22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①

23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㉡에 들어갈 한자를 찾을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- ① 守(수): 지키다
- ② 改(개): 고치다
- ③ 受(수): 받다
- ④ 固(고): 굳다
- ⑤ 存(존): 있다

정답 ②

[24~25] 지문 풀이

공자가 말했다. “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, 남의 악을 이루어주지 않으니, ㉠소인은 ㉡이와 반대이다.”

24.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㉠ 小人(소인): 작은 사람. 도량이 좁은 사람 [수식 관계]

- ① 古今(고금): 예전과 지금 [병렬 관계]
- ② 朝夕(조석): 아침과 저녁 [병렬 관계]
- ③ 大魚(대어): 큰 물고기 [수식 관계]
- ④ 海洋(해양): 바다 [병렬 관계]
- ⑤ 問答(문답): 물음과 대답 [병렬 관계]

정답 ③

25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①

[26~27] 한시 풀이

(가) 온 ㉠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인데,
고향은 지금 어떠할까?
㉡지난번 돌아갔을 때도 서로 아는 이 적었으니,
훨씬 전에 이미 전장이 많았던 때문이지.

(나) 금빛은 실버들에 들고 옥빛은 ㉢매화를 떠나는데,
작은 ㉣연못의 새로운 물은 이끼보다 푸르네.
봄날 시름과 봄날 ㉤흥취는 무엇이 (더) 깊고 얇은가?
제비도 오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네.

26.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한시 풀이 참조

정답 ③

27.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(가)에는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.

정답 ⑤

[28~30] 지문 풀이

변씨의 아들은 약관(의 나이)에 고양이를 잘 그려 명성이 서울에 ㉠진동하였다.
...(중략)... 그가 말하였다. “업은 넓고 거칠기보다는 한 가지 사물이라도 정밀하게
하여서 이름을 이루는 것만 못하다. 나 또한 ㉡일찍이 산수(화)를 하는 것(그리는
것)을 배웠다. 그러나 지금의 화가를 압도하여 그 위로 ㉢뛰어날 수 없음을 ㉣헤아
렸다. 그러므로 사물을 골라서 ㉤익혔다.”

28. 글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⑤

29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③

30.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그림을 찾을 수 있는가?

정답 해설: 지문 풀이 참조

정답 ④